

韓國庭園界의 展望

尹 仁 上

韓國庭園을 말하기 前에 庭園양식에 對하여 간단한 說明이 必要하다. 庭園양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니 平面幾何學式 또는 圖案式으로 만들어 人工美를 最大限 나타내게 한 것과 그와는 反對로 人工美를 나타내지 않고 自然風景 그대로 만드는 方式의 두가지가 있다. 前者는 歐羅巴에서 일찌기 發達한 庭園樣式이므로 西洋式庭園이라고도 말하고 後者는 中國을 爲始하여 日本庭園等이 그러하므로 東洋式庭園이라고도 말한다. 最近 先進國家에서는 큰 邸宅 特히 公園에는 圖案式과 自然風景式을 混合하여 建物가까이는 圖案式으로 꾸미고 建物에서 떨어진 곳 또는 境界線 가까이는 樹林과 築山, 塘池等 自然風景을 만들어 아름답고도 웅장한 庭園을 만드는일이 流行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混合式庭園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固有의 庭園양식은 어떠한 것인가. 韓國庭園양식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極히 적을 정도다. 훌륭한 庭園양식이 發達되어 있었다는 것은 歷史記錄上으로나 또는 現在 남아있는 遺蹟等에 依하여 잘 알 수 있다. 慶州에 있는 雁鴨池, 鮑石亭의 遺蹟 또는 佛國寺의 靑雲橋, 白雲橋의 웅장하고도 멋진 모습들은 新羅時代의 工藝, 美術의 찬란한 發達과 아울러 우리나라 庭園手法이 發達되었음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日本の 庭園學者 橫井時冬氏의 著, 日本庭園發達史에 日本推古王때에 百濟人 路子江이 日本에 건너가 王을 爲하여 南庭에 山形과 吳橋의 庭園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日本에 있어서 築山式庭園定形의 시초일 것이라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李朝時代에 指導階級인 선비들이 淸貧을 美德으로 삼아 庭園에 全然 관심이 없었고 더우기 壬辰倭亂때에 모든 것이 燒失破壞되고 盜難當하여 없었으며 그 후 國力의 衰退와 及其也는 四十年間 他民族의 支配속에서 僅僅히 生을 유지함에 있어 庭園따위는 우리 韓人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解放後 모든 分野의 획기적인 發展, 特히 國民經濟의 급격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으니 一般市民들 사이에도 庭園에 관한 認識이 차츰 普及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져 있는 庭園들을 볼 때에 진실로 우리 風土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낸 庭園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돌을 너무 많이 쌓아올린 것. 常綠樹로서 향나무만을 過用하여 單調할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보기에 흉할 정도의 것도 있다.

원래 庭園에 심는 나무를 用途上 네가지의 種類로 크게 나눌 수 있으니 (1) 꽃피는 나무, (2) 常綠樹, (3) 그늘지게 하는 나무(大概是 落葉性喬木), (4) 灌木들이다. 이 네가지 種類의 나무들을 適當한 場所에 適當한 量을 심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氣候는 春夏秋冬 四절의 變化가 顯著하면서도 大陸性氣候로서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춥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朔風을 막고 여름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야 할 것이다. 常綠樹外에 落葉樹를 곁들여 심으므로써 봄과 여름철에는 아름다운 꽃과 울창한 綠陰, 가을과 겨울철에는 길게 물든 단풍과 常綠樹 사이로 落葉진 가지들의 神秘로운 風景을 觀賞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八十年代에 百億弗을 輸出하게 되면 國際收支面에서는 先進國家의 隊列에 들어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世界各國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外國人의 數가 激增할 것은 必然한 일이니 우리나라 거리의 風景을 이대로 둘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政府에서 새마을運動을 通하여 國土美化에도 힘쓰고 있으니 一般國民이 協調努力한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韓國庭園의 자랑할만한 特徵 몇가지를 말하겠다.

東洋式庭園에 있어 重要視되는 亭子是 우리나라의 것이 그 어느나라 것보다도 重厚端雅하고 아름답다. 中國의 것은 飛亭이라고 해서 처마끝이 나무 위로 추켜져 있고 日本의 것은 벗집 등으로 지붕을 이온 것이다. 또 우리나라 亭子는 大概의 경우 기둥 두개의 下部가 石材로 되고 연못 안에 세워져 있어 亭子의 모습이 水面에 비치도록 되어 있다. 연못은 언저리를 다듬은 石材로 쌓아져 있어 연못 全體가 亭子모습과 잘 調和되어 있다. 昌德宮 秘苑에 있는 芙蓉亭과 거기에 있는 연못을 바라 볼 때에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또 다리(橋)는 石材를 써서 良鏡式의 橋脚으로 되어있고 石塔, 石燈等은 우리의 固有한 石物의 藝術美와 아울러 庭園風景을 돋구는 훌륭한 添景物이다. 本人이 옛날 學生때에 南原에 있는 廣寒樓와 안경식으로 된 烏鵲橋의 너무도 퇴락한 모습을 보고 깊은 感懷에 젖은 記憶이 있다. 우리나라 公園에 廣寒樓와 같은 固有한 樣式의 樓閣을 짓고 그 옆에 우리式의 연못과 石橋를 만들어 우리의 傳統과 情緒와 藝術을 우리 國民뿐만 아니라 널리 外國人에게도 알릴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前·財務·商工次官)